

# ‘비판 없는 비평’ 한국문학 위기 불렀다

### 신경숙 표절 논란으로 본 문학 현주소

#### 나주출신 윤희상 시인의 시 제목도 소설 제목으로 도용 한국작가회의 오늘 토론회...“표절 기준·처벌규정 필요”

“작가 지망생 김 모(36)씨. 그는 오래 전부터 소설가의 꿈을 안고 이름 있는 문예지에 투고하고 있다. 소설을 쓰는 것으로는 ‘밤벌이’를 할 수 없다는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작가의 꿈을 버리지 않고 있다. 물론 김 씨도 알고 있다. 소설이 자신의 삶을 온전히 지탱해주지 못하리라는 사실을. 그럼에도 작가가 되고자 하는 소망을 포기할 수 없다. 그것은 지금까지의 자신을 부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가끔씩 문학에 대한 송고한 생각을 견지하고 있는 문청들을 볼 때면 안쓰럽다. 한국 문학이 처한 현실은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들은 매년 이상문학상을 비롯, 현대문학상, 동인문학상 등 유수의 문학상 수상 작품집들을 꼬박꼬박 사서 읽는다. 이들에게 유명한 문예지나 신춘문예에 당선돼 등단하는 꿈은 (타 분야의) 사법시험, 임용고시 못지않은 ‘출세’이자 영광의 길이다.

연이신경숙 작가의 표절 논란은 수많은 문청들에게 좌절을 안겨주고 있다. 작가지망생인 허호범(42)씨는 “묵인돼 있던 게 이번 일을 계기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초기에 문제가 불거졌을 때 작가와 출판사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표절 의혹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6일 소설가 이음준이 온라인 매체 기고문을 통해 신 씨의 단편 ‘전설’이 일본 작가 미시마 유키오의 ‘우국’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신 씨가 1999년 소설 ‘말기발’에 등장하는 여섯 문단의 편지가

안승준 유고집 ‘살아는 있는 것이오’의 서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번에는 신 작가의 단편소설 두 편의 제목이 나주 출신 시인 윤희상(54)씨의 작품 제목과 일치한 것으로 드러나 표절 의혹은 더 확산될 전망이다. 신 작가가 지난 1990년 ‘한국문학’ 3~4월 합본호에 발표한 ‘무거운 새의 발자국’과 1992년 ‘문예중앙’ 가을호에 발표한 단편 ‘멀리, 끝없는 길 위’는 윤희상 시인이 신 작가보다 앞서 발표한 시 제목과 동일했다.

윤 씨는 1987년 청하가 발행한 무크지 ‘현실시각’ 2집에서 ‘멀리, 끝없는 길 위’를 발표했고 이어 1989년 민음사가 발행한 ‘세계의 문학’ 불호에서 ‘무거운 새의 발자국’을 게재했다. 이에 윤 씨는



신경숙

한 언론에 이메일 답변을 통해 “작가가 출처를 밝히지 않아 생기는 아픔이 생각보다 많다”며 “앞으로는 문학적 사실이 왜곡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까지 신경숙 작가는 17일 “우국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상의 의혹을 일축하는 발언 외에는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차가자 집필을 위해 서울을 떠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문학동네 편집위원인 신형철(조선대 문예창작과 교수) 평론가는 “우국”과 “전설”의 해당 부분이 “거의 같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과정이 어떠하건 ‘우국’과 ‘전설’ 사이에 빚어진 이 불행한 결과에 대해서는 작가의 자문과 자성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신 작가의 표절 의혹이 일파파로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19일 서울 교보문고 광화문점의 작가별 소설코너에 표절 의혹을 받는 단편 ‘전설’이 포함된 소설집 ‘감자 먹는 사람들’이 꽂혀 있다.



작가 신경숙의 표절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19일 서울 교보문고 광화문점의 작가별 소설코너에 표절 의혹을 받는 단편 ‘전설’이 포함된 소설집 ‘감자 먹는 사람들’이 꽂혀 있다. /연합뉴스

## 檢, ‘成 로비 의혹’ 김한길·이인제 의원 소환

### 특사관련 노건평씨도

성원중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성 전 회장과 금품거래 의혹이 제기된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의원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특별수사팀은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 의혹과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인 노건평씨에게도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22일 “리스트에 기재된 정치인 8명 외에 추가로 수사 과정에서 의혹이 불거진 정치인 2명의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환 일정을 타진 중인 정치인은 이 의원과 김 의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팀은 두 사람을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성 전 회장과 금품 거래 의혹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대상자 2명은 확인해야 할 의혹의 내용이 서면조사로 그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환 조사를 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경남기업 내 자금의 최종 사용처를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대상자 2명과 관련된 의혹이 불거졌다”

고 덧붙였다. 검찰은 최근 경남기업 관계자들로부터 김 의원과 이 의원이 성 전 회장에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할 만한 진술과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과 이 의원은 소속 정당이 다르지만 성 전 회장과 친분이 두터운 정치인으로 꼽힌다.

성 전 회장이 정치인들과의 회동 일정을 적은 다이어리에 여러 차례 이름이 등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 장성에 호남권 농산물 비축기지 건설

### 농수산식품유통공사, 262억원 투입 내년 완공

2일 aT에 따르면 농수산식품 유통 사업·사회적 책임과 연계한 지역사회 협력·지원 사업 계획을 마련해 올해부터 본격화한다. 지난해 나주의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로 옮겨 온 aT는 분야별 지역 사회 협력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aT 수행사업에 따른 지역사회 협력 지원 사업으로는 지역 생산자단체와 연계한 이동형(차량) 로컬푸드 직매장(5개소)을 개설, 정례적으로 운영한다. 또 정책 사업과 연계한 직거래 장터 4개소와 로컬푸드 직매장 5개소를 확충하기로 했다. 현재 합평농업기술센터와 맺은 지역 기관 단체와 유통정보 링크도 올해 3곳으로 늘린다.

지역 신선 농산물 해외 수출을 위해 강진 파프리카와 나주배 해외 특별 판촉전을 실시하고 지자체 해외시장 개척 사업을 aT가 위탁받아 실시하는 협업도 강화한다.

장성에 짓고 있는 호남권 농산물 비축기지도 262억원을 들여 1만705㎡ 규모로 내년 완공한다. 그동안 농협물류센터·장성군과 협의가 지지부진했으나 최근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돼 오는 10월께 착공할 예정이다. aT가 올해 수매할 지역 농산물은 겨울배추 4000t, 마늘 2000t, 양파 4000t, 콩 700t, 견고추 400t, 매밀 140t 등이다.

사회적책임과 연계한 동반성장 활동으로는 지역대학생 방학 인턴을 확대하고 지역인재 인원의 20% 이상을 광주·전남지역에서 채용할 계획이다.

또 지역밀착형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역위기 가장 지원, 근로장학생 지원, 농식품 사회적 기업 지원, 농촌마을 자매결연, 일손돕기 등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김동열 aT 유통이사는 “물품구매, 공사용역, 입찰 계약시 지역중소업체를 우선해 지정할 방침이다”며 “지역 농어업인의 소득증진을 물론 국민의 안정적인 먹거리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aT는 최근 정부가 공개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 이전한 16개 기관 중 유일하게 A등급을 받았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전남 메르스 격리자 28일이면 ‘0’

### 자택격리·능동감시 20명...道, 특별관리 연장기로

오는 28일이면 전남도내 중증호흡기증후군(메르스) 관련 격리·능동감시가 모두 해제될 전망이다. 지난달 28일 첫 메르스 관련 첫 격리자가 발생한 이후 한 달만이다.

다만 최대 잠복기인 14일을 지나 발열 등 증세가 나타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전남도는 보성군 확진환자 접촉자에 대해 추가로 7일간 능동감시에 나서고, 타 시·군 거주 접촉자에 대해서는 각 보건소에 특별관리를 권고하는 등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관련기사 6면>

전남도는 22일 “이날 자정을 기해 자택 격리자 149명, 능동감시 대상자 9명 등 158명의 격리가 해제되면서 지금까지 모두 677명의 접촉자가 일상으로 돌아갔다”고 밝혔다.

지역 내 첫 확진 판정을 받은 A(64)씨로 인해 출입이 통제된 보성군의 한 마을의 격리도 이날 해제됐다. 17세대 주민 30명, A씨 직장동료 12명, 기타 접촉자 495명 등 A씨 관련 접촉자 537명도 격리 이전 생활로 돌아갔다.

전남도는 이날 오전 보건소 의사 10명, 심리상담사 1명을 투입해 이 마을 주민들

을 상대로 혈압·당뇨·체온·심리상담 등을 실시하고 위로 방문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내 격리 및 능동감시 해제 주민에 대해서는 각 지역 보건소를 통해 당분간 관리하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22일 오후 남아 있는 자택 격리자는 9명, 능동감시 대상자는 11명 등 모두 20명이며, 3명은 현재 타 시·도 병원에 격리돼 있다. 이들도 23일(9명), 25일(10명), 28일(4명)을 기점으로 최대 잠복기가 지나 격리조치가 모두 풀릴 예정이다.

전남도 강영구 보건의료과장은 “서울 삼성병원 등 외부 접촉자가 추가 통보되거나 지역 내 접촉자가 다시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잠복기 이후에도 증세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전국적인 상황을 주시하면서 추가 확산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2일 오후 8시 현재 국내 메르스 환자가 3명 추가 확인돼 172명으로 늘었다. 기존 확진자 중에서 2명이 숨져 전체 사망자는 27명으로 집계됐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지역 자산 1위 금고**  
**소액(3억이하) 다수인을 위한 우대 대출**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특판**

**한도는 최고**      **금리는 최저**

- ☑ 햇살론대출
- ☑ 임대보증금대출
- ☑ 정부정책자금대출
- ☑ 일일상환대출

※ 근저당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양림지점 652-9203      서동본점 720-2828      월산지점 364-7557

**서양새마을금고**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고객의 입장에서 공감하며  
 전문성으로 만족스런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서명심 변호사입니다.**

형사      민사      가사      행정

[ 사기·성범죄 / 개인회생·파산 이혼·재산분할·위자료 / 상속 ]

상담 ▶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법률사무소 名家 변호사 서명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법원 버스정류소)  
 대표전화 062)227-7223      팩스 062)227-7224

**빌려주고 못 받은 돈 회수 해 드립니다.**

(금융위원회 99-7호)

세일신용정보(주)는 국내 각 금융권을 대표하는 새마을금고연합회, 삼성카드, 산은캐피탈, 한국캐피탈, 전북은행이 주주로 참여한 믿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 차용증,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뚜렷한 대인이 없는 경우
- 채무자가 타인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
- 강제집행 등 법 조치를 하고 싶는데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알지 못하는 경우
- 채무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해야 할 때
  - 가압류/소송/집행까지
  - 전담 법무사와 Non-stop 서비스
- 민사채권, 물품대금, 공사대금, 미수금 등
- 채권회수는 타이밍 싸움입니다.
- 결정을 이루는 사이 채무자는 재산이전, 폐업, 소재불명으로 이어집니다.
- 빠른결정만이 소중한 재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 재산조회비용 **無**      ☑ 착수금 **無**

영업사원 모집

대표전화 : 062) 531-5990      010-2069-5958

**세일신용정보(주)**